일본 오염수 방류 예고…전남 수산업계 피해 '아우성'

전복 매출 급감 등 직격탄…천일염 사재기 열풍에 가격 두배 급증
어민들 수억원 피해·횟집 매출 하락 등 현실화…대책 호소 촉구

일본 정부가 12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설비를 시운전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속도가 붙으면서 전남지역 어민과 시장 상인, 유통업자 등 수산업계가 직접 타격을 받고 있다.

수산물과 소금 등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우려에 벌써부터 매출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신안 천일염의 경우 오염수 방류 전에 사둬야 한다며 사재기 열풍까지 불어 실제로 가격이 두배 가까이 올랐다.

완도에서 15년째 전복을 양식하고 있는 이성욱(55) 완도군 신지면 동고어촌계장은 "전복이 이렇게 안 팔리는 것은 15년만에 처음이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1월께 구입한 전복 10만미를 키우고 있는데, 지난 4월께 출하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이 넘도록 한 마리도 출하하지 못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오염수 논란으로 소비자들이 전복을 잘 안 사먹고 유통업체에서 출하를 거부하고 있다"며 "출하 길이 꽉 막혀버리는 바람에 100만미씩 키우는 집은 수억원 단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고 혀를 찼다.

수산물 유통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불경기 때문에 전남지역 대부분의 수산물 유통업계 매출이 30%가량 줄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오염수까지 방류하면 매출이 반토막이 나거나 그 이상의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산물 유통업체 (주)완도전복 관계자는 "다음 달이면 복날이라 전복도 많이 팔려야 하는데, 오염수 이미지 때문에 홍보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여름이 되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 출하하지 못한 수산물들이 집단폐사할 위험이 커지는데, 그렇다고 살 사람 없는 수산물을 무턱대고 출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생산자와 유통업자 모두 힘든 시기다"고 한숨을 쉬었다.

상인들도 매출이 끊겨 울상을 짓고 있다. 광주 대인시장에서 40여년째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광수(65)씨는 "옛날엔 하루 매출이 많으면 1000만원까지도 나왔는데, 오염수 방류 이야기가 나오고 하루 300만원대로 뚝 떨어졌다"며 "오염수가 방류되면 하루 30만원 매출도 못 낼 것 같은데,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줄지 막막하다"고 전했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김순애(여·66)씨도 "오염수 얘기가 돌고 나서 손님이 체감상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생선을 사가려다가 일행으로부터 '후쿠시마 소식 못 들었냐'는 말을 듣고 그냥 가 버린 손님도 있었다"고 고개를 떨궜다.

반면 국산 천일염의 경우 '오염수에 노출되기 전에 구입해야 한다'는 등 사전 구매 심리가 작용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광주시 북구 망월동 '광주농협로컬푸드직매장'은 13일 신안 천일염을 1인당 2포씩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가격 또한 20㎏ 포대 기준 1만 8000원대에서 3만 25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하지만 이날도 5분만에 10여명이 몰려들어 20㎏ 들이 소금을 두 자루씩 구입해 가는 등 수요가 몰렸다.

신안군 수협은 13일 온라인 판매장에서 2021년산 천일염(20㎏ 들이)을 '일시 품절' 시켰다. 기존에는 기껏해야 하루에 10~20포 팔리던 천일염이 최근 들어 하루 1000여포씩 팔려나가다 보니 택배 물량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남신안농협 또한 최근 천일염을 '일시 품절' 시켰는데, 소금 주문량이 너무 많아 산지에서 소금을 운송해 올 인력이 바닥났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오염수 방류로 발생할 충격에 대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성욱 동고어촌계장은 "아무리 정부에서 안전하다고 말해도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오염수를 정말로 방류할 셈이라면 어민들은 그냥 죽으라는 것"이라며 "정부와 자치단체가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민들의 살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3일 오후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 수산물 판매장에 찾는 이들의 발길이 뜸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변호사가 판사에게 '사건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면…청탁? 변론?

당시 재판 담당했던 장동혁 의원 법조계 비리 재판 증인으로 출두
"변론" 발언에 법조계는 "부적절"

변호사가 사건담당 판사에게 재판 전에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고 부탁한 것은 '청탁'일까 '변론'일까.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이 13일 진행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A변호사와 광주지역 B변호사에 대한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장동혁(충남 보령시 서천군) 국회의원의 발언이 논란이다.

장 의원이 이 자리에서 "법조계에서 사건담당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있는 일이며,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또는 '적절성' 여부를 떠나 변론의 한 과정이라고 본다"고 증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재판에 피고로 선 A·B변호사는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C씨에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2020년 1월 보석 허가를 내줄 당시 장 의원은 광주지법에서 C씨의 재판을 담당했다. 구속 상태였던 C씨는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장 의원과 15년전 대전지법에서 3년 정도 함께 근무한 A변호사는 2019년 11월께 장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관련 내용을 이야기 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A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와 '재개발사업 관련 사건을 B변호사가 맡게 됐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등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좀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 해당 사건 기록을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선고재판을 2주 앞두고 이례적으로 C씨에 대한 보석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도 갑작스럽게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사직을 앞둔 시점이라 사건이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면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지고 다음 재판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법관에게 '사건을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변론의 일종으로 봤다고 전직 법관이 증언을 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재판에 앞서 담당 법관과의 친분과 인맥을 이용해 사전에 '사건을 잘 살펴봐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정당한 변론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지역 법조인은 "변론은 법정에서 서면 또는 진술로 해야 하는데 사전에 인맥과 친분으로 연락을 한다는 것은 사건을 맡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 잘 봐달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라면서 "전관예우로 흔들리는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발언이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메신저 통해 모국어로 적극 대화 설득 베트남 출신의 귀화 경찰관 역할 컸다

집단 탈주 외국인 7명 자수 배경은

부티항 경위, 지인·가족과 소통 9명과 연락하며 자수 권유 주효

광주광산경찰서 월곡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외국인 10명이 집단 탈출한 사건과 관련, 절반이 넘는 7명이 자수를 해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명의 외국인들이 도주를 멈추고 자수를 한 데는 같은 베트남 출신으로 귀화한 광산경찰서 부티항(여·37) 경위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티항 경위는 광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계 외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1일 새벽 6시 40분께부터 10명이 모두 붙잡힌 12일 오후 5시 20분까지 그는 도주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자수를 권유하는 역할을 했다.

그는 모국어인 베트남어로 이들과 의사소통을 했고 도주한 이들의 SNS와 베트남 모바일 메신저 'ZALO'어플을 적극 활용해 대화를 이어갔다.

그 결과 도주한 10명 중 9명과 연락이 닿았고 7명을 자수하게 했다. 4명은 경찰서에 찾아와 자수했고 3명은 광주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찾았다.

특히 도주한 이들의 지인, 가족 등과 끊임없이 소통해 자수를 적극 권유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티항 경위는 "안타까운 마음이 무엇보다 컸다"며 "빠른 시일내에 자수할 수 있도록 도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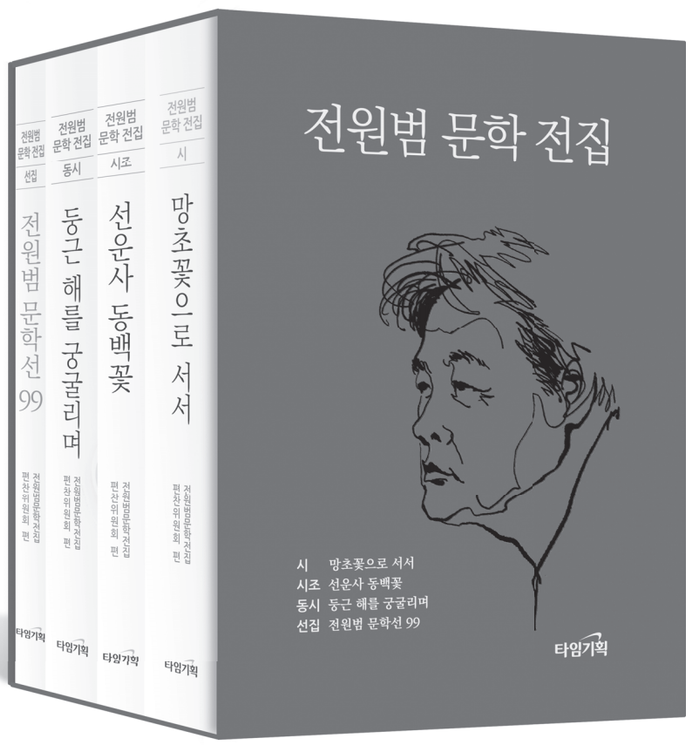
그는 한국인 남편을 만나 베트남에서부터 꿈꾸던 경찰이 되기 위해 지난 2011년 귀화했다. 2018년 6월 특채로 경찰에 발을 들인 그는 외국인이 많은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에서 톡톡한 성과를 거두며 2년만에 경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광주여대 베트남 유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1년에 두차례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티항 경위는 "낯선 타국에 왔을 때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기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며 "타국에서는 잘 모르면 범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잘 잡아주는 안내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떨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인간의 영혼이 만들어 내는 숭고한 정신과 삶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깊은 서정 속에서 펼쳐 보이는 전원범의 시는 시의 미적 형식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과 삶과 자연의 아우라를 정리하는 통찰을 제공한다. —오윤호(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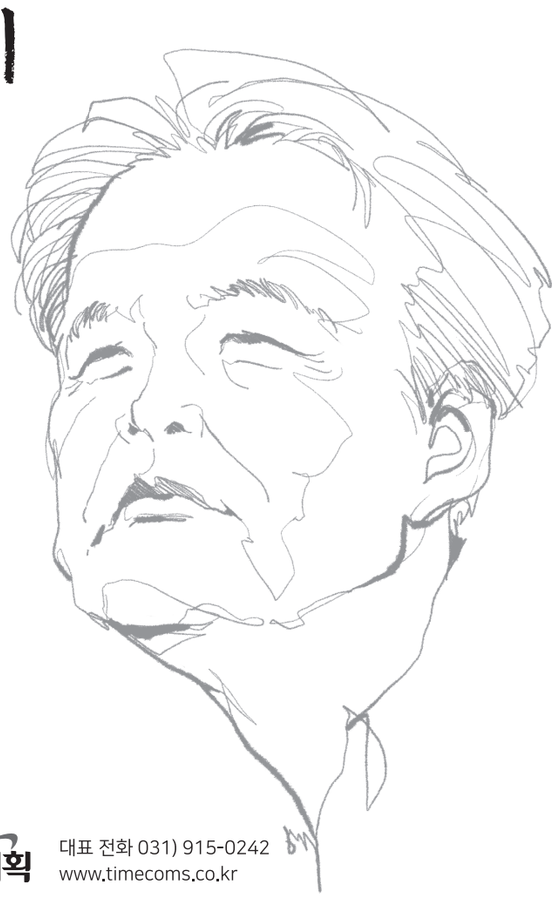
전원범의 시조가 보여 주는 주된 정조는 그리움이며, 쓸쓸하면서 맑은 정신 지향은 번잡한 우리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준다. —염창권(시인,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동시 세계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해와 하늘과 꽃'이다. 그는 이를 통해 밝고 맑고 아름다운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준관(시인, 아동문학가)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둥근 해를 궁굴리며』(동시 전집)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